

북한 체육 관련 조직과 경기력은 어느 정도인가?



김흥태

대전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체육행정 및 정책 전공
남북체육교류협력론에 관심
sn6899@daejin.ac.kr

이 글은 2018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 즈음하여 그동안 남북한 간의 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한 상호 경기력 관련 상징적 비교와 북한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 등의 언급과 함께 북한 체육 관련 조직의 특성과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 2058대 396의 의미는? 둘째, 북한의 체육관련 최상위 국가기구(조직)은? 셋째, 남한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내각 체육 관련 조직은? 그 조직의 수장은? 등이다.

북한의 국가체육지도위원회와 체육성

북한은 제3세대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장 이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일환으로 체육강국 건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11월에 현재 국무위원회 전신인 당시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고모부인 장성택을 위원장으로 하는 37명의 파워 엘리트들 대거 포진시켰다.

이로인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북한의 체육관련 단체 및 기구들을 지휘·통제하는 최상의 국가기구의 위상¹⁾을 확보하게 된다. 초대 장성택 위원장 숙청·처형 이후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부위원장이 2014년 9월부터 승계하여 2014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깜짝 방남하는 실세 3인방으로 소개된바 있다. 최근인 2017년 12월에 들어 최휘 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되며, 우리가 잘 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북한 특사단 일원으로 방남하며 뉴스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그림 1]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및 체육성 주요 인물



북한 체육 관련 최상위 국가기구인 국가체육지도위원회와 달리 내각 소속으로 남한의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응하는 ‘체육성’이 존재한다. 북한 내각은 31성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인 체육성은 북한 체육 분야를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조직으로 이해 된다. 남한의 장관급인 체육성 체육상은 오랜 기간 북한 체육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체육성 제1부상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등을 역임한 김일국으로 당연직인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에 2016년 12월²⁾ 등재된바 있다. 이와 함께 차관급인 북한 체육성 부상으로 최근 각종 남북체육회담 및 교류행사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원길우 부상이 매스컴에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체육 관련 조직은 국가최고 기구로서의 국가체육지도위원회와 내각 산하에 체육성이라는 조직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무위원회의 체육 분야 역할 수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 연합뉴스(2018), 北, 체육관련 기구·단체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최상위, 2018.1.26.

2) 연합뉴스(2018), 北김일국, 국가체육지도위 서기장 출신 체육 베테랑, 2018.2.6.

북한 체육과학 및 체육촌의 이해

북한의 체육 및 스포츠과학의 현주소는 북한의 1959년 6월 당시 내각 직속 체육지도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체육과학연구소의 변천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체육과학연구소는 1999년 체육과학원이 발족하면서 체육의학연구소, 체육영양학연구소, 체육기재연구소, 체육과학도서관 등과 함께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소는 산하에 구기종목, 중경기종목(권투, 역도, 레슬링, 유도 등), 기교종목(체조, 리듬체조, 다이빙 등), 순환종목(육상, 스피드스케이팅, 조정 등) 등 4개 분야별 연구실³⁾⁴⁾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체육과학연구소는 최근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조직적으로 투여하는데 관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소가 운동선수용 약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은 역도 종목 등에서 일부 핵심 선수가 2016년 리우올림픽에 약물복용으로 출전이 무산된바 있다.⁵⁾

아울러 북한은 남한의 국가대표 선수촌인 태릉선수촌에 해당하는 일명 ‘안골체육촌’이 존재한다. 안골체육촌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의 청춘거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폭적인 지휘를 받아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2014년 3월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였다. 각종 경기장과 함께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운영하는 서산호텔에서 합숙훈련⁶⁾ 등을 통해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최대의 종합체육단지인 안골체육촌은 1989년 7월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해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아 건립됐다. 5만명을 수용하는 주경기장과 9개의 실내경기장, 피로회복관과 일명 서산축구장으로 불리는 안골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92년에 건립된 태권도전당은 안골체육촌의 중추적 건물로 주 경기장과 9개의 훈련장과 수영장, 사우나 및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2,500여명을 수용하는 원형 역도경기장이 별도로 존재하며, 잠실야구장과 비슷한 규모인 북한 유일의 평양야구장을 갖추고 있다.⁷⁾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의 역도 종목으로 우수선수 조기 발굴과 함께 넓은 선수층을 확보하며, 최근 중국과 더불어 역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은 세대교체라는 과도기를 겪으며 한때 경기력 쇠퇴가 나타났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북한의 역도 종목은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 등과 같은 종합국제대회에서 북한의 확실한 메달 획득 종목으로 전망 가능할 정도로 북한의 효자 종목이자 전략적 육성 종목으로 향후 지속적인 선전이 예상된다.

3) 이학래(2004), 북한체육사연구, (사)민족통일체육연구원, pp 117-119.

4) 연합뉴스(2006), 北체육계의 버팀목 체육과학연구소, 2006.2.8.

5) 연합뉴스(2016), 약물투여·나이조작? 북한선수단 의혹 잇따라, 2016.8.14.

6) 연합뉴스(2016), 北 역대 메달리스트 산실은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 2016.8.6.

7) 서울pn(2014), 유일한 야구장·역도경기장 갖춘 북한판 태릉선수촌, 2014.8.20.



[그림 2] 북한 태권도전당

출처: www.daum.net

북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및 메달획득 현황

북한 관련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메달획득 현황에 기초한 종합 경기력은 남한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련 기관 및 각 종목 협회 및 연맹의 정보공시 및 홈페이지 등에 기반한 남북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메달획득 현황을 통해서 남북한의 비대칭적인 경기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남한은 제2회 1954년 필리핀 마닐라 하계아시아경기대회부터 참가하여 제17회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까지 총 16회의 연속적인 참가를 통해서 금메달 696개, 은메달 606개, 동메달 756개 등 총 2,05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남한은 2000년 이후인 제14회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이후에는 금메달 309개, 은메달 268개, 동메달 336개 등 총 913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이처럼 남한은 2002년 이후 4개의 대회에서 평균 약 228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금메달은 약 77개, 은메달은 약 67개, 동메달은 약 84개를 보이며,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2강 체제를 굳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8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목표로 하는 종합 2위 수성을 달성한다면 6회 대회 연속 2위를 기록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제7회 1974년 테헤란 하계아시아경기대회부터 참가를 시작하여 제17회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까지 총 11회 진행된 대회에 불참 2회 참가 9회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9회 참가를 통해 금메달 98개, 은메달 132개, 동메달 166개 등 총 396개의 메달 획득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인 제14회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이후에는 금메달 32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63개 등 총 136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북한의 2002년 이후 4개 대회를 평균하면 1개 대회에 약 34개의 메달 획득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2002년 이후 대회에서의 금메달은 평균 약 8개, 은메달은 약 10개, 동메달은 약 16개 정도를 획득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 이후 종합순위(9위-16위-12위-7위)로 환산하면 최근 4개 대회에서 평균 11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순위의 변동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지난 2010년 광주우대회부터 특히 역도의 강세와 함께 남녀축구, 그리고 전통적 강세 정목으로 구분되는 사격, 유도, 레슬링 등의 공헌에 힘입어 종합순

[표 1] 남북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참가현황 및 메달획득 현황 비교분석

대회	구분	메달현황		
		금	은	동
1954년 제2회 마닐라	북한	-	-	-
	남한	8	6	5
1958년 제3회 도쿄	북한	-	-	-
	남한	8	7	12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북한	-	-	-
	남한	4	9	10
1966년 제5회 방콕	북한	-	-	-
	남한	12	18	21
1970년 제6회 방콕	북한	-	-	-
	남한	18	13	23
1974년 제7회 테헤란	북한	15	14	17
	남한	16	26	15
1978년 제8회 방콕	북한	15	13	15
	남한	18	20	31
1982년 제9회 뉴델리	북한	17	19	20
	남한	28	28	37
1986년 제10회 서울	북한	-	-	-
	남한	93	55	76
1990년 제11회 베이징	북한	12	31	39
	남한	54	54	73
1994년 제12회 히로시마	북한	-	-	-
	남한	63	56	64
1998년 제13회 방콕	북한	7	14	12
	남한	65	46	53
2002년 제14회 부산	북한	9	11	13
	남한	96	80	84
2006년 제15회 도하	북한	6	9	16
	남한	58	53	82
2010년 제16회 광저우	북한	6	10	20
	남한	76	65	91
2014년 제17회 인천	북한	11	11	14
	남한	79	70	79
계	북한	총 396 (금98/은132/동166)		
	남한	총 2058 (금696/은606/동756)		

위의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참가이력에 따른 남북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메달획득 현황을 통한 남한 대비 북한의 메달 획득현황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겠다.

첫째, 남한 대비 북한의 총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메달획득은 남한 총 2,058개, 북한 총 396개로 남한 대비 19%를 보이고 있다. 둘째, 남한 대비 북한의 2002년 이후 총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메달획득은 남한 총 913개, 북한 총 136개로 남한 대비 15%를 보이고 있다. 셋째, 남한 대비 북한의 총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금, 은, 동메달 획득은 남한 금메달 696개, 은메달 606개, 동메달 756개, 북한 금메달 98개, 은메달 132개, 동메달 166개로 남한 대비 각각 금메달은 14%, 은메달은 22%, 동메달은 22% 획득을 보이고 있다. 넷째, 남한 대비 북한의 2002년 이후 총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금, 은, 동메달 획득은 남한 금메달 309개, 은메달 268개, 동메달 336개, 북한 금메달 32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63개로 남한 대비 각각 금메달은 10%, 은메달은 15%, 동메달은 19% 획득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남한은 2002년 이후 4개의 대회에서 평균 약 228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금메달은 약 77개, 은메달은 약 67개, 동메달은 약 84개를 보이는 반면에 북한은 2002년 이후 4개 대회에서 약 34개의 메달 획득을 보이며, 금메달은 평균 약 8개, 은메달은 약 10개, 동메달은 약 16개 정도를 획득하며, 최근 2010 광저우 대회부터 종합순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표 2] 남북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메달획득 현황 비교분석 (2002 이후)

남한		북한		남한 대비 획득율
금메달	696(309)	금메달	98(32)	14%(10%)
은메달	606(268)	은메달	132(41)	22%(15%)
동메달	756(336)	동메달	166(63)	22%(19%)
2,058(913)		396(136)		19%(15%)

북한의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력 현황

북한의 최근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기관 및 각 종목 협회 및 연맹의 정보공시 및 홈페이지 등에 기반한 종목별 메달획득 현황을 통해서 남북한의 비대칭적이고 북한의 일부 종목에 편중된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력을 조명 할 수 있겠다. 남한은 제17회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통해서 금메달 79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79개 등 35개 종목에서 총 22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제17회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통해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금메달은 7개 종목, 은메달 역시 7개 종목, 그리고 동메달 역시 7개 종목에서 메달 획득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들 메달 획득 종목은 총 9개 종목으로 수영(다이빙), 복싱, 체조, 유도, 사격, 탁구, 역도, 레슬링, 남녀축구 등이다.

[표 3] 남북한 2014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메달획득 현황 비교분석

남한		북한		남한 대비 획득율
금메달	79	금메달	11	14%
은메달	70	은메달	11	16%
동메달	79	동메달	14	18%
228		36		16%



출처: shutterstock

이와 같은 제17회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남북한 메달획득 현황을 통한 남한 대비 북한의 메달 획득 현황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11)에 대한 종목별 기여도에서는 1순위 역도(4)로 36%, 2순위 체조(2)로 18%, 3순위 복싱(1), 사격(1), 탁구(1), 레슬링(1), 여자 축구(1) 등이 각각 9%를 보이고 있다. 은메달(11)에 대한 종목별 기여도에서는 1순위로 역도(3)와 사격(3)이 각각 27%, 2순위로 체조(1), 다이빙(1), 유도(1), 남자축구(1), 레슬링(1) 등이 각각 9%를 보이고 있다. 동메달(14)에 대한 종목별 기여도에서는 1순위 유도(4)가 28.5%, 2순위로 수영(3)이 21%, 3순위로 역도(2)와 탁구(2)가 각각 14%, 4순위로 체조(1), 사격(1), 레슬링(1) 등이 각각 7%를 보이고 있다.

둘째, 북한의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메달획득 종합 현황에 따른 종목별 기여도는 1순위로 역도(9)가 25%, 2순위 유도(5)와 사격(5)이 각각 14%, 3순위로는 수영(4)과 체조(4)가 각각 11%, 4순위는 탁구(3)와 레슬링(3)이 각각 8%, 5순위로는 남녀축구(2)가 6%, 마지막 6순위로는 복싱(1)이 3%를 보이며, 2014년 인천 대회에서는 역도를 선두로 유도, 사격, 그리고 체조 등이 북한의 효자종목의 역할을 수행한바 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나타난 북한의 경기력은 지난 2010년 광저우 대회에 이어 역도와 사격, 유도, 체조 등에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레슬링, 남녀축구, 복싱, 탁구, 다이빙 등 약 9개 종목 등에서 북한의 모든 메달이 집중되는 편중현상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도 종목은 북한이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 그리고 동메

달 2개로 총 9개의 메달획득으로 북한 전체 메달획득 가운데 약 25%를 차지하는 절대 강세 종목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북한의 전통적 강세 종목으로 볼 수 있으며, 지난 2015년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직접 언급된 9개 종목인 “여자축구와 마라톤, 역기(역도), 권투, 탁구, 레슬링, 유도, 기계체조, 활쏘기”와 같은 종목들에서 북한의 선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 북한의 주요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경기력 예상은 남녀축구, 역도, 유도, 사격, 수영의 다이빙 종목과 여자 마라톤, 체조, 탁구, 레슬링, 복싱 등에서 선전이 기대되며, 이들 종목은 북한이 주요 국제대회에 주기적으로 참가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한은 일부 종목에 편중된 경기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착안하여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향후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전략적 접근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보다 확장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비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 만들기 (Peace making through Exchange & Cooperation)”라는 대원칙의 천명과 준수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겠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등에 ‘평화 메신저(peace messenger)’로서, 또한 ‘평화 메이커(peace maker)’로서의 역할수행을 담당하바 있다. 분단사에 있어서 남북화해협력에 이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수단으로 남북체육교류협력은 평화공존으로의 진입장벽에 대한 선제적 통로역할과 함께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부흥기를 촉진할 입구전략(entrance strategy)의 일환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불가역적인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북한체육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이 글에 실린 내용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